

[OECD 개발이사회 주요 결과]

I.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년1월17일(목)/파리 OECD 본부
- 안건 : 개발전략 이행 중간 보고 등 개발현안 논의
- 참가대상 : 비회원국(개발센터 회원국 및 중국 등) 및 국제기구

II. 주요내용

가. 일반이사회

- 각료이사회('13.5월)에서 개발전략 이행의 구체적인 성과 제시 필요 강조
- 개발전략 이행의 약 60%를 신규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 제기

나. 개발이사회

1) OECD 개발전략 중간진행 보고서(Interim progress report)

- 보고서 주요 내용
 - 2012.5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OECD 개발전략상 부록에 포함된 13개 사업 및 포용적 혁신분야(총14개)에 대한 후속조치 진전사항과 예산사항 관련 정보 등 제공
- 중간 보고 내용
 - 개발 및 개발전략을 2013-14 회계연도 사업예산(PWB)에 주류화
 - 개발 및 개발전략 이행 마커(marker)를 각각 부여(개발분야는 149백만 유로, 개발전략분야는 93.7백만 유로에 해당)
- 우리나라의 개발전략 후속조치 참여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으로 지원중인 동아시아 녹색성장을 향하여 사업(Toward Green Growth in East Asia, 79.8만불)이 포함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 우리 정부가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5년간 2억불 지원기로 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 ODA로 2008년은 에너지관리공단, 2009년-2012년간은 KOICA에서 사업 집행

2) 개발현안 논의

- 환경, 조세, 민간분야와의 협력, 취약국가, post-MDG 강조
 - DAC 의장(Erik Solheim)은 향후 DAC이 환경, 조세, 민간분야와의 협력, 취약국가, 포스트 2015에 우선순위를 두어갈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에 지지를 표명함.
- 한국, 독일 주축의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 공식 출범

〈지식공유연대〉

- 지식공유: PCD와 함께 OECD 개발전략의 핵심수단
- 주도국 : 한국, 독일
 - 독일 : '12-13년간 총 60만-80만 유로 지원 및 직원 파견)
 - 한국 : 독일과 함께 지식의 공동생산, 현장에서의 실행에 기여
- 4대 중점 분야
 - 1) innovative and sustainable sources of growth;
 - 2) mobilization of resources for development;
 - 3) governance for development;
 - 4) measuring progress for development; and Project proposals and cross-cutting themes set out in the Annex to the Strategy.
- 추진 계획
 - 향후 2년간 전략(Strategic Level) 및 실행(Operational Level) 차원의 Terms of Reference 수립 예정

- 조세, 국내 개발재원동원,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논의
 - 세션별 논의를 통해 조세 등 국내 개발재원 동원,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 등이 개도국 개발에 미치는 함의 및 OECD의 포스트-2015에의 기여 방안 논의

Ⅲ. 관찰 및 평가

- DAC사무국의 개발전략 이행중간보고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마련이 향후 집중 논의 대상
 - － 참석국들이 제기한 개발전략 이행 중간보고서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해 사무국이 현재는 적절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OECD 평가 네트워크 등 기존 시스템 활용방안 등 향후 동 논의가 개발전략 이행의 주된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식공유연대 참여국 확대 예상
 - － 우리나라는 지식공유연대 출범행사에서 독일과 함께 이번 OECD 지식공유연대의 창설 멤버로서 지식공유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글로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우리측과 독일의 재정 및 인적자원 제공 등을 통해 향후 더 많은 회원국이 지식공유연대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 조세, 민간과의 협력, 취약국가, post-MDG의 중요성 및 파트너국(개도국)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Erik Solheim 신규 DAC 의장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국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파트너국가와의 대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에 대해 참석국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향후 DAC 차원에서 파트너국가와의 대화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관찰됨.
 - － 또한, 정책의 차이가 가져온 경제적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판문점을 사례로 동인의 발언을 시작하는 등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인상을 가진 것으로 관찰
- 조세시스템 강화 등 부분에서 공여국과 개도국간 시각차 존재
 - － 브라질 등 파트너국가는 논의된 조세시스템 강화가 기존의 공적개발원(ODA)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부가가치 기준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논의 역시 무역자유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계심을 표출하는 등 공여국과 파트너국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